

사순 제 1 주일

기도서 248면 (B해)

- 제1독서: 창 세 9, 8-15
- 제2독서: 1 베드 3, 18-22
- 복 음: 마 르 1, 12-15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회개와 보속의 시기에

김 용 태 신부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과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이 시중들었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마태오(4장 1절에서 11절)과 루카복음(4장 1절에서 13절)에 비해 너무나 짧게 말하지만 예수께서 악령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 분임을 말할 수 있게 한다. 즉 사탄이 인간의 약점인 물질적 탐욕과 권세욕과 교묘한 타협으로 예수님을 유혹한다.

첫째 유혹인 기아는 물질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먹기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부류를 볼 수 있지 않은가?

둘째 유혹인 권세욕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 모든 권위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 법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모든 법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의탁해야만 백성의 심부름꾼으로써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물리자한 통치자들은 그들 자신의 야심을 마치 주님의 뜻인양 위장하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마치 양의 털을 쓴 이리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권좌에 있게 되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세째 유혹은 교묘한 타협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 보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즉 주님을 악을 타협으로 이길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과 미타협적 엄격성을 요구하시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신다.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에 굴절거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에게로 들어 올려야 한다. 주님은 세속의 어떠한 매수도, 인기 전술도, 타협도 다 거부하시고 오직 당신을 온전히 성부의 뜻에 맡기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위와 같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써 끼친 해독을 하느님으로 하여금 해소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청하면서 보속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항상 깨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영위한다면 어떤 유혹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로 은총의 시기요, 구원의 때인 사순시기이니, 회개와 보속행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노송동 주임신부)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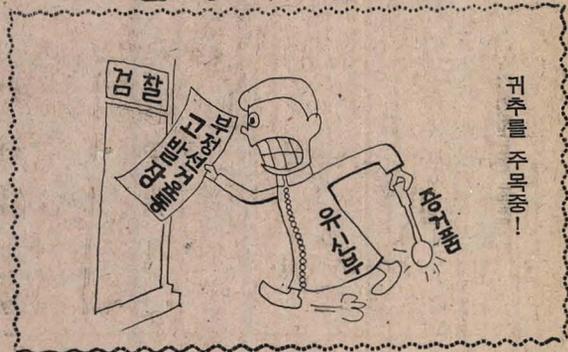
할머니가 시내버스에 오르지 않아 있던 고등학생이 발떡 일어선다. "할머니, 앉으세요." "괜찮아, 학생." "할머니, 앉으세요." "괜찮아, 나는 두 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학생이 그냥 앉아서 가. 고마워, 학생." -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잠시 잔잔하게 웃음이 번진다.

진강하게 생긴 남자 고등학생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서 앉아 있는 아저씨에게 스스로없이 맡긴다. "아저씨, 가방 좀 받아주세요." 아무 말없이 가방을 받아들든 중년 아저씨의 얼굴에 불쾌한 기분이 잠시 흐른다. 흡가분한 몸이 된 고등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려 저희들끼리 통하는 이야기를 시골짜하게 떠벌린다. 그 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열에서 보고 있던 승객 하나가 혼잣말을 한다. "요새 아이들은 어쩌면 저리도 예모도 없고 심약할까..."

"학생 요즘은?" "뒤에서 내요." "학생, 요즘내요." "예? 여기 있어요." "앞사람들 것은?" "왜 내가 내요. 나 그 아이들 몰라요." -짜증섞인 안내양의 투덜대며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시루루 물려 나가는 젊은이들의 위세(?)에 놀려 아무도 말을 못한다. 그냥 불쾌한 얼굴만 하고, 승객들은 혼자서들 혀만 찬다.

금년은 세계 청소년의 해이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고통받고 소외된 청소년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들과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 각자는 이 사순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푼의 현금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을 기억하며 회개와 보속의 단식재를 지키고, 그 몫의 현금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아들과 내 본당의 젊은이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숲 정 이 산책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

“사람아, 너는 흠에서 나왔으니 흠으로 돌
아갈 것을 생각하라.”

지금은 사순절, 자신의 회개와 이웃 사랑
실천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순절에 나는 무엇
을 할 것인가?

참회의 정신과 실천은 불필요한 재물에 대한 집착, 나
아가서는 필요한 재물에의 집착까지도 끊어 버리는 일이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대로 재물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사순절, 이 기간동안 특별히 부당한 재물에 얽매인 우
리 마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부활의 은총으로 더욱 풍
요로와 질 수 있도록 준비하자.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물질적 재화가 많은 다른 사람
들에게는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또 그
들은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돕겠다는
구호나 조그마한 자선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회개다. 즉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박탈당한 사람들, 또한 조상 대대
로 물려받아 살던 청년 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진바를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나누
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키 위하여 받으신
고통과 죽음의 신비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을 것이
다. 참다운 나눔, 즉 타인과의 만남은 우리를 속박하는
쿨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참다
운 나눔은 이웃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아
버지의 자녀이며 우리 모두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부요
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사람”(로마 8, 17)임을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 사순절 묵상

“주여! 나는 먼지와 재 속에서 통회하나이다”(욥기
42.6).

“너는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창세기 3.19).

“거역하며 저지르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먹고 새 뜻을 품어라”(에제키엘 18.31).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
는 말씀으로 살아가는도다”(마태오 4,4).

“지금이 들어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토 후서 6.2).

십자가의 길(聖路神功)

예수님께서 고통중에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빌라도
관저에서 갈바리아산 십자가 세워진 곳까지 대개 1,317
보의 거리다. 이 길을 교회 초기부터 열심한 교우들은
걸으면서 주님의 수난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순례를 했
던 것이다. 그러나 거리가 먼 타지방 교우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수난
하신 사실 중에서 중요한 것 14가지의 모습을 만들어 성
당 양 벽에 표시해 놓은 것이다.

성로신공이란 바로 이 앞을 하나 하나 지나면서 예수
수난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묵상하며 수난에 결부된
내 죄를 아파하며 드리는 기도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묵상하는 기
도요, 우리 죄를 뉘우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느님 아버지
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 아드님 예수를 모독하고 죽인,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극도의 배반이요 반항이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배반과 반항을 계
속하고 있지 않은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녀들인 우리가 형제들인 이웃과 자기 자
신을 모독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그만 두지 않으면 안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 모독과
반항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
성하셨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서
자신과 이웃과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뒤 살아계신 동안은 정오
부터 세 시까지며, 이 세 시간동안 일곱번 말씀하셨다.

① “아버지 처 사람들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 34).

②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
이다”(루가 23, 43).

③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이다”(요한 19, 26-27).

④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나이까?”(마르코 15, 34).

⑤ “무마르다”(요한 19, 28).

⑥ “이제 다 이루었다”(요한 19, 30).

⑦ “아버지 제 영혼을 이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가 23, 46).

가난과 병중에 고통받는
이의 상담역이 되어 드
립니다
동강원 한약방
조대입구(광주공고 버스
정류소 앞)
광주시 서석동 30-3
☎ 22-1334 · 27-5641
신수길(도마)
이승연(요안나)

학생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미례사(금순)
☎ ① 9206 · ② 5289

□마춤 · 대여□
신부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페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판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⑥ 6951
정인기(논지도)
최영자(헬레나)

〈정성과 봉사〉
금, 은, 보석, 시계
금진당
전주백화점 1층 52호
☎ 2-5506
정인진(프란치스코)

□ 나누는 교회의 의지를 보며...

사순절을 보다 뜻깊게 보내기 위해 가진 바를 나누는 사랑의 실천운동이 각 본당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구내 여러 본당(정읍 시기동, 고산, 용안, 둔율동, 월명동, 팔마, 남원, 영등동, 함열 등)에서는 금번 사순절 동안 특별 자선 성금을 모으고, 절미운동을 벌이며, 헌옷을 모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있다는 흐뭇한 이야기. 이런 노력 속에서 진정 나누는 교회의 의지를 보며 그 좋은 일에 우리 모두 빠짐없이 동참했으면...

□ 효과적인 복음 선교를 위해,

진 교회가 복음 선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 교회라 할 때, 자기는 포함되지 않는 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류이다.

교회는 '너와 나이다'. 너와 나인 교회의 우선적 사명인 복음 선교의 원리와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시, 연구함으로써 현대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복음 선교를 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재인식하고 그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식을 더 심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능코스 목상회만을 주관해 오던 교구 M.B.W 추진회에서는 금번 「현대 복음 선교」 코스 목상회를 마련한다.

2월 25일~27일(2박 3일) 정읍 내장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목상회에 성직자, 수도자는 물론 일반 평신도중 기초 코스를 마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교구 전체 공지사항

1. 남성 제22차 꾸르실료 : 일시-23일~26일, 장소-가톨릭 센터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M.B.W) : 현대 복음 선교 코스, 일시-2월 25일~27일, 장소-내장산, 집결-가톨릭 센터 25일 오후 2시, 참가비-2만5천원 문의 및 접수처-교육국(☎ 0041~3)
3. 중·고생 쉼 테크닉 연수 : 일시-3월 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중·고등학생, 회비-1천원
4. 대학생 주일 : 일시-2월 24일 오후 3시~7시(매월 마지막 주일) 장소-가톨릭 센터 1층 식당. 문의처-센터 2층(교육국, 대학생연합회) ※ 초청강의-강의 I 가톨릭 대학생 신앙생활, 강의 II 공동체로서의 교회
5. 교구 혼인 법원 : 2월 26일 오전 10시 교구청
6. 교리교사 연수회 : 3월 2일~3일, 장소-가톨릭 센터
7. 꾸리아 간부 연수회 : 3월 1일 가톨릭 센터 회의실, 꾸리아 간부 전원, 회비-3천원

□ 성서 40주간 회원 모집

수요일반 : 2월 27일 오전 10시 개강, 김보나 수녀
 목요일 밤반(목요성서) 3월 7일 오후 7시30분 개강, 문 규현 신부, 월회비-2천원

□ 교사학교 학생 모집 ※ 별지 참조

1. 교 과 목 : 성서, 신학, 철학, 종교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 등
2. 과 절 : 1년(1학기 : 3~5월, 2학기 : 9~11월)
3. 수업시간 : 매주 화·수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4. 원서교부 및 접수 : ①기간-2월 11일~3월 11일
 ②장소-교구청 교육국(☎ 0041~3)
5. 등 록 금 : 학기당 4만5천원(교재비, 특강비 포함)

요십이 (603) 김병오

이번 선거유세때 들은 재미있는 말은? 그건...

학사위에 석사있고 석사위에 박사있고 박사위에 육사있고

민정당은 1층대이고 민한당은 2층대이고 국민당은 3층대이고

광주사태 조종자와 장여인 조종자와 김대중 남치 조종자의 낯 짝을 보고 싶다는 말

신혼여행, 가방 및 모자 학생 등산 일절 ※ 주문배달 ※

설악산 가방
 (국민은행 ↔ 남문중간)
 ☎ 6-6362
 ※ 교우님 신학기 특별우대 최 유리ানা(점례)

대원서점
 초·중·고 참고서, 문제집, 전집물, 아동용 도서
 시청사거리 남성여고후문 이리시 남중동 1가75-3
 ☎ 3-8414
 송현식(송비리버) 고양순(마리아)

학 생 사(서점·문구)

* 학습용품 · 사무용품 · 복사
 * 초·중·고 참고서 · 문제집 · 각종 서적
 신학기용품 도매 교우분들 우대
 군산시 명산동 사거리 전복은행 앞
 ☎ 7993 · 0233
 주. 조. 길. 남(도미니교)

85학년도 원아모집

* 유아반(만 3~4세) : 20명
 * 유치반(만 5~6세) : 40명
 *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통학버스 운행 ※ 현재 원서 접수중 미술교사 초빙-1명

관인 해돋이 미술교육학원
 효자동 우진아파트 입구 ☎ (75) 4374
 원장 김순주(베로니카)

(4) 순 정 이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①

(중앙)

☎사제관 ①171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보좌신부 한정현
사도회장 김인철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이다미안·한아가다 수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분당용 제의 봉헌하실 분 찾습니다
- 울뜨레야: 금일 공식미사 후
- 중학교 교리 개강: 오늘 9시 미사후
- 방지거 3회: 오늘 오후 2시
-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사순절 성미운동: 성미는 신학생 후원에 쓰이게 됩니다
- 가정방문: 3월초부터 분당신부님 반장님은 구역내의 교우집 파악 바랍니다
반장회합-28일(목) 11시, 점심 제공

(금암동)

☎사제관 ①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도회장 소완영

- 사도회 임원: 수고하시겠습니다
신교-신동철, 교육-홍보-정두희, 전례-한규석, 봉사-김용택, 재정-박영근, 감사-이춘수·박준우·유영화, 사무장-유용환
- 미사 봉헌 바람: 각 가정에서 생미사, 연미사 한대씩 봉헌 바람
- 예비신자 모집: 1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인도합니다
- 가정방문: 3월 1일~2일, 금암동 3반(덕진)
- 각종, 비품 은인 구할: 신부님과 상의 바람
- 사도회 확대회의: 사도회 구역장·반장 각 pr단장

(노송동)

☎사제관 ①0969 주임신부 김용태
☎수·사 ①7032 보좌신부 김의철
사도회장 이홍재

- 신축기금 납부하신 분: 장금안·김부월·김요제-4만10만원, 정금순-7만원, 이운복-2만원, 백복선-1만원, 문영진-4만원, 송희진-40만원, 유정자-4만8천원, 박준성-8천원, 김인곤-5천원, 임인준-3천원, 김순자-3만5천원, 이명례-5만원, 이복자-10만5천원, 조성용-4만원, 이성순-10만원
계-874,000원, 누계-5,149,000원
- 구역봉사자 모임: 28일 저녁 8시, 빠짐없이 참석
- 공소회장단 회의: 26일 오후 3시, 신원리 공소에서
- 파년도 교무금 납부합니다: 28일 현재로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오니 확인하세요
- 금주의 전례담당: 제3조, 차주는 제4조가 담당
- 아파트성당 소식
①교리교사 임명식: 오늘 미사후에(7명)
②주일학교 개학: 오늘 오후 3시30분, 부모님 협조
- 남성 제22차 꾸르실로: 손소부씨·채수원씨·전태권씨, 많은 기도와 빨랑카 부탁드립니다

(덕진)

☎사제관 ①2182 주임신부 김봉희
☎수녀원 ①2222 보좌신부 김요안
☎사무실 ①6259 사도회장 양상열

- 오늘의 모임·행사
진복회-12시, 주일학교 졸업식-오후 2시
- 사순 분재 순정미미사: 오늘부터 매일 새벽 6시
- 새 수녀님 부임(25일): 유치원-윤영자(그랜센시아) 전교-이승숙(달마지아)
- 덕진신협 정기총회: 25일 성당에서
- 진복유치원 예비소집: 26일
- 전례분과·교육분과위원회: 27일 저녁미사 후
- 구역장·반회장 모임: 27일 오후 2시
- 금주 분당청소: 주일학교(3월 2일) 오후 2시

- 차주 전례담당: 송천동 4반
- 분당 신학생 탄생(3월 2일 입학)
주진태(토마스)·이완재(다두)
교무금: 430,000원

(복자)

☎사제관 ①0592 주임신부 권영균
☎사·수 ①5238 사도회장 김성원

- 3월은 성요셉 성월
-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 복자부녀회: 3월 2일 오전 10시
-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탑, 토-셋벨
차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정동민 ②장영자
차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이갑진 ②정운주

(서학동)

☎사제관 ①8307 주임신부 김반석
☎수녀원 ①2276 사도회장 김낙균

- 모임: 자모회-3월 5일 오전 10시30분
- 사목방문: 13반-26일·27일, 12반-28일·29일
오전 10시부터
- 중·고생 동계연수회: 분당에서 25일~26일
※ 감사-정양현 신부님, 오전 9시부터
- 차주전례: 해설-김광수·김은경,
독서-김나섭·함문권,
기도-천사의 모후pr

(순정미)

☎사무실 ①7366 주임신부 김종길
☎수·유 ①9567 사도회장 김수걸

- 애령회: 오늘 공식미사 후
- 부녀회: 3월 2일 오전 10시, 호세아 예언서 연구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미사후
십자가의 길에 대한 해설과 특별강론 있음
※ 사순절동안 금육과 단식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우시다 ※ 성미운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기호·유희자
차주전례: 해설-강원모, 독서-기도-정주부·홍성조

(전동)

☎사제관 ①6208 주임신부 김치삼
☎수녀원 ①3222 보좌신부 김기곤
☎사무실 ①8347 사도회장 김병오

- 글라라 형제회: 오늘 1시30분
 - 사도회·유아세례: 다음주
 - 성가정회: 3월 1일 12시-미사 있음
 -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주일학교 자모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월회비-1천원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장금배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 지난주 봉헌금: 교무금:

(호자동)

☎사제관 ①3841 주임신부 박종신
☎수녀원 ①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무실 ①0915

- 금주 주부 성서대학: 마태오 1~7장
- 레지오 연총친목회의: 3월 3일 오후 2시
※ 꾸리아 회의 있음
- 성모기사회: 3월 2일 오후 1시30분
-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강당에서